

●양계 기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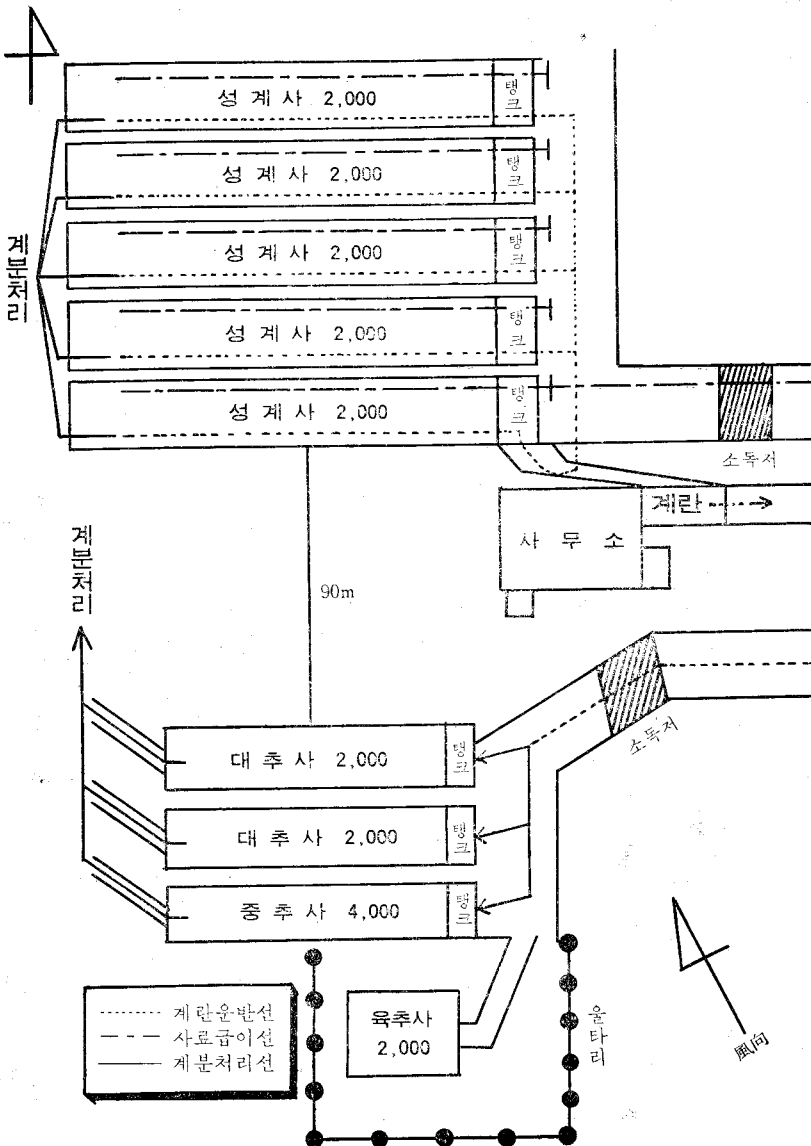
벽은 외부기온에 의한 계사 내의 온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전도율이 적고 내연성이며 불침투성인 재료가 좋다. 벽의 높이는 2.1m가 좋다.

계사의 높이가 너무 낮은 계사는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환기, 채광, 보온상 불리한 점이

창문은 닭의 채식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채광을 유지하고 환기에 보다 유의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해야 한다.

많다.

근래의 계사는 단위 계사의 넓이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흔히 바닥 면적에 비례하여 창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해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광은 닭의 채식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되 환기면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보통 좁은 계사에서는 바닥 면적의 $\frac{1}{3}$ 정도를 권장하나 넓은 계사에서는 바닥 면적에 $\frac{1}{4}$ 정도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는 환기시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환기시설중 입기구는 최소한 겨울철에는 바닥 면적의 $\frac{1}{30}$, 여름인 경우 $\frac{2}{30}$ 가 필요하며 배기창은 바닥 면적의 $\frac{1}{30}$ 이 되어야 한다.

입기구의 위치는 겨울에는 벽 높이의 $\frac{1}{3}$ 이상 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여름에는 바닥에서 45cm의 입기구 밑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천정은 보온을 위한 시설로 대개 천정 위에는 비닐을 깔고 12~15cm 정도의 두께로 왕겨를 깔아 보온시설을 함이 좋다.

계사의 폭은 최저 7.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계사 외부주변에는 30cm 이상 깊이의 배수구를 파서 계사외부의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채란계사

어떤 단위면적이 있을 때 그 부지는 최대한으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가지 위험의 발생등을 예견하여 계사배치와 알맞는 건축을 하여야 한다.

육추 육성사와 성계사의 분리

육추사는 별도의 부지를 사용하되 동일부지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육추사, 중추사, 대추사, 성계사순서로 건립하되 육추육성사와 성계사와의 간격은 최소 90m 이상은 띄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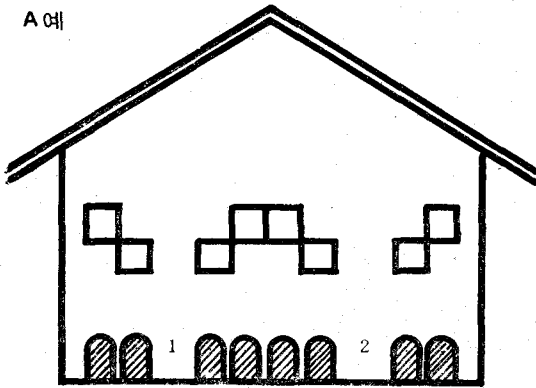
계사간격

계사의 높이(棟高)×4.5배~10배 정도가 통풍관계로 보아 적합하다.

계사의 배치

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앞면의 도면은 그 한 예로서 전술한 내용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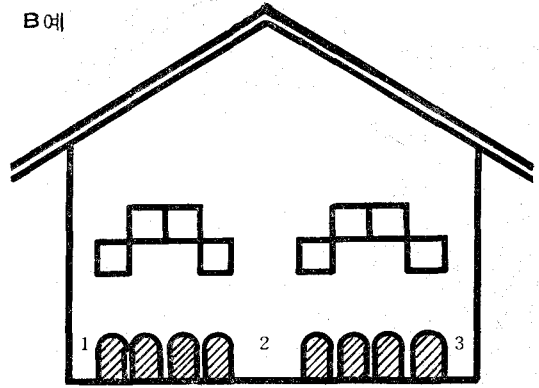
계사내부의 배열



A에는 작업로가 돌이고 작업면은 4면으로서

양면의 상단부는 벽과의 사이가 13~35cm 정도를 띄우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예



B에는 작업로가 셋이고 작업면은 4면인데 각 도로의 폭은 일의 능률과 계사내부의 환경차에 따라서 결정한다.

A와 B의 차이점은 급이나 집란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면작업(兩面作業)을 하여야 하므로 A가 편리하고 계분처리를 위한 콘베어를 설치할 때는 B가 더 낫다. 한국에서 이런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겠으나 매년 대형화해가는 계사와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노임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사건립때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케이지의 선정

케이지의 형태가 변형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계사를 새로 지을 때에는 계사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응용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계사의 출입구는 넓게하고 케이지의 문은 상하식(上下式)이나 개폐식(開閉式) 모두 좋으나 손으로 열었을 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백신접종이나 닭을 취급할 때 편리하다. 그러나 닭 자신이 문을 열 수 없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